

#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 페루

Republic of Peru

2019년 6월 11일 | 조사역(G3) 안현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동향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 일반개황

<b>면적</b> 1,285천 km <sup>2</sup> 	<b>인구</b> 32.16백만 명 (2018 <sup>e</sup> ) 	<b>정치체제</b> 대통령중심제 	<b>대외정책</b> 경제실리외교 
<b>GDP</b> 2,252억 달러 (2018 <sup>e</sup> ) 	<b>1인당GDP</b> 7,002.09달러 (2018 <sup>e</sup> ) 	<b>통화단위</b> Nuevo Sol(Ns) 	<b>환율(U\$기준)</b> 3.29 (2018 <sup>e</sup> ) 

- 페루는 남미 중서부에 위치한 태평양 연안국으로, 에콰도르, 콜롬비아, 브라질, 볼리비아, 칠레와 국경을 접하고 있음. 면적은 한반도의 6배 수준이며, 인구는 2018년 기준 32.2백만 명으로 중남미 제 5위, GDP 규모는 2,252억 달러로 중남미 제6위 규모임.
- 구리, 금, 아연 등이 풍부한 광물자원 부국으로, 원자재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아 원자재 국제 가격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음.
- 쿠친스키(Kuczynski) 전 대통령의 부패 스캔들과 관련한 자진 사퇴 이후 2018년 3월 비스카라(Vizcarra) 대통령이 취임하여 부패 척결 및 광산업 촉진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다만, 국정 운영을 위해 여소야대 정국 하에서 야당의 지속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임.
- 부정부패 만연, 지역간 빈부격차, 코카인 원료 불법 재배 및 마약 관련 범죄로 인한 치안불안 등에 따른 사회적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음.
-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 안데스공동체(CAN) 등의 회원국으로 역내 경제·사회통합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FTA 체결을 통한 양자간 협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됨.

##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63. 4. 1 수교 (북한과는 1989. 11. 21 )

**주요협정** 사증면제협정('82), 경제과학기술협력협정('84), 문화협정('88), 투자증진및보호협정('94), 관광협력협정('03), 범죄인인도조약('05), 자유무역협정('11), 운전면허상호인정협정('13), 무상원조협정('13), 이중과세방지협약('14), 형사사법공조조약('16)

### 교역규모

(단위 : 천 달러)

구분	2016	2017	2018	주요품목
수 출	1,154,989	913,659	802,926	가전제품, 자동차, 석유화학제품
수 입	1,294,386	2,132,881	2,474,365	아연, 동, 커피, 수산물

**해외직접투자현황(2018년말 누계, 총투자기준)** 63건, 2,490,832천 달러

## 국내경제

(단위: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경제성장률	2.4	3.3	4.0	2.5	4.0
소비자물가상승률	3.2	3.5	3.6	2.8	1.3
재정수지/GDP	-0.2	-2.1	-2.3	-2.9	-2.1

자료: IMF, EIU

### 중남미 국가 평균 대비 안정적인 경제 성장 지속

- 페루는 구리, 금, 아연 등 원자재 수출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아 원자재 국제가격 변동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음. 페루 경제는 2010~13년 원자재 붐의 영향으로 5%를 상회하는 고성장을 지속하다 2014년 중반부터 시작된 원자재 국제가격 하락으로 이후 성장이 다소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중남미 국가 평균\*\* 대비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2018년 기준 페루 수출총액 중 광물자원의 비중은 58.9%, 페루 GDP에서 광업 부문의 비중은 9.4%임.

\*\* 중남미 평균 경제성장률: 0.3%(2015년) → -0.6%(2016년) → 1.2%(2017년) → 1.0%(2018년)

- 2017년에는 원자재 국제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엘니뇨에 따른 흉수 등 이상기후 발생\* 및 중남미 전역을 강타한 부패 스캔들인 '오데브레히트(Odebrecht) 사건\*\*'으로 인해 인프라 투자사업이 중단 혹은 연기되어 2.5%의 경제성장에 그쳤음.

\* 엘니뇨란 태평양 적도에서 발생하는 해수 및 대기 시스템 변화 현상으로, 페루는 2017년 엘니뇨에 따른 해양 수온 변화로 호우 등 기상이변이 발생해 도로, 주택, 교량, 농지 등이 파괴되어 GDP 대비 1.9%인 40억 달러의 피해를 입음.

\*\* 중남미 최대의 건설회사인 브라질 오데브레히트(Odebrecht)사가 브라질, 페루,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등의 전·현직 대통령 등에게 거액의 뇌물을 공여한 사건

- 2018년에는 엘니뇨 재해복구 사업 실시, 인프라 및 광물자원 개발 투자 증가와 구리 등 원자재 국제가격 상승으로 4.0%의 경제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 2019년에도 주요 수출품인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광산 개발 프로젝트 활성화 및 인프라 투자 지속에 따른 건설 부문 호조에 힘입어 4%에 육박하는 경제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재해복구 사업) 엘니뇨 피해로 파손된 인프라(도로, 교량, 학교 등) 재건을 위해 2018년 13억 달러를 투자하였으며, 2019년 중 22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임.
- (인프라) 2019년 개최되는 판아메리칸게임(Juegos Panamericanos 2019)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13억 달러를 투자하였으며, 2019년 중 리마 국제공항 확장(10.6억 달러) 및 리마 지하철 2호선 공사(53.5억 달러) 등의 인프라 투자가 예정되어 있음.
- (광물자원) 2018년 중 광물자원 개발에 전년대비 48% 증가한 3.4억 달러를 투자하였으며, 2019년에도 주요 수출품인 구리 광산에 대한 설비 투자 등을 위해 6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임. 또한, 구리 광산 개발 프로젝트(Quellaveco(53억 달러), Mina Justa(16억 달러), Toromocho(13억 달러) 등) 앞 외국인 투자 유입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국내경제

### 확장적 통화정책 지속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물가수준 유지 중

- 페루 중앙은행은 물가안정목표제(관리목표 물가수준  $2\pm 1\%$ )를 통해 물가를 관리하고 있으며, 2016년 중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엘니뇨에 따른 식료품 가격 인상 등의 영향으로 물가상승률이 3.6%를 기록하여 목표물가수준을 다소 상회하였으나 2017년 이후 3%를 하회하며 중남미 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인 물가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2018년 중남미 주요국 물가상승률: 아르헨티나 34.3%, 멕시코 4.9%, 콜롬비아 3.2%, 브라질 3.7%

- 한편, 페루 중앙은행은 2016년 2월 기준금리를 4.25%까지 인상하였으나 마이너스 GDP갭\*을 감안하여 2017년 5월 이후 총 6차례에 걸쳐 금리를 하향 조정(2017.4월 4.25% → 2018.3월 2.75%)하는 등 확장적 통화정책을 지속하고 있음.

\* 잠재GDP와 실질GDP의 차이로, GDP갭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것은 실질GDP가 잠재GDP만큼 성장하지 못하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떨어지는 상태를 의미함.

- 2017년 상반기에는 엘니뇨에 따른 식료품 가격 인상 여파\*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다소 상승하였으나, 하반기부터 식료품 공급 회복에 따른 가격 안정세로 물가상승률이 전년 대비 하락한 2.8%를 기록하였으며, 2018년에도 동 추세가 지속되어 1.3%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페루의 소비자물가지수(CPI) 구성 중 식료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26%, 외식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1.7%임.

- 한편, 2019년에는 경제성장에 따른 마이너스 GDP갭 규모 축소, 에너지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2%대 중반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됨.

### 2018년 재정수지는 소폭 개선 전망

- 원자재 국제가격 하락으로 인한 재정수입 축소 및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 등으로 2014년 이후 재정수지는 적자를 지속하고 있음.

\* 페루 정부는 대외개방경제의 기초 하에 대규모 광산 개발 및 인프라 투자 등을 통한 경기부양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재정지출이 필요한 상황임.

- 2017년에는 엘니뇨에 따른 성장세 둔화로 세수가 감소하고 피해 복구를 위한 재정지출이 증가하여 재정 적자 폭이 확대되었으나, 2018년에는 성장세 회복 및 가솔린, 주류, 담배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 인상\*에 따른 세수 증대 등으로 재정적자 폭이 전년대비 소폭 감소하였음. 한편 2019년에는 정부의 인프라 투자 지속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 및 광물가격 상승에 따른 세수 증가로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이 전년대비 감소한 -1.9%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페루 정부는 2018년 국민의 건강보호 및 세수 증대를 위해 가솔린, 주류, 담배, 탄산음료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 인상을 단행하였음.

- 한편, 페루 정부는 재정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경상지출\* 합리화 등을 통해 2021년까지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을 1% 내외로 감축시킬 예정임.

\* 임금 및 재화, 서비스 구입비용 등으로, 2018년 기준 전체 재정지출의 약 76%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됨.

## 대외거래

###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달러,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경상수지	-8,925	-9,170	-5,304	-2,720	-3,348
경상수지/GDP	-4.4	-4.8	-2.7	-1.3	-1.5
상품수지	-1,179	-2,548	2,108	6,657	7,049
상품수출	39,533	34,414	37,020	44,918	48,942
상품수입	40,711	36,962	34,912	38,261	41,893
외환보유액	60,068	59,400	59,769	61,425	57,930
총외채	69,215	72,995	74,410	76,946	76,217
총외채잔액/GDP	34.2	38.1	38.3	35.9	33.8
D.S.R.	16.1	17.6	20.4	27.6	1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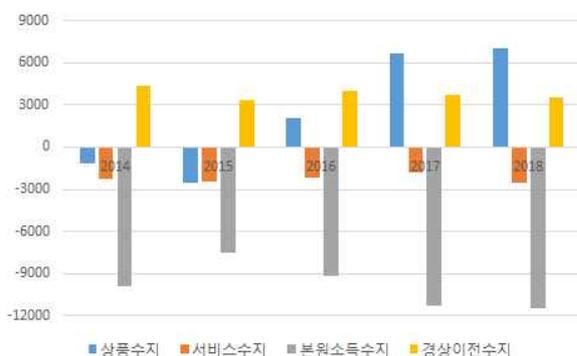
자료: IMF, EIU

### 상품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 적자 지속

- 페루는 원자재 의존형 수출구조를 갖고 있으며, 2018년 기준 구리, 금, 아연 수출이 전체 광물자원 수출의 70%를 차지하는 등 상품수지가 원자재 국제가격 변동에 영향을 받는 구조임.
- 2014~15년에는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상품수지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2016년에는 원자재 가격 하락세 지속에도 불구하고 광물 생산량 증가에 따라 상품수지가 흑자로 전환되었음. 2017~18년에는 원자재 가격 상승 및 농업 분야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상품수지 흑자 규모가 확대되었으며, 2019년에도 구리 생산량 증가 및 구리 가격 상승에 힘입어 상품수지 흑자 규모가 전년대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해외근로자 송금 등으로 인한 경상이전수지는 매년 40억 달러 내외의 흑자를 기록함에도 불구하고, 광산 기업 등 다국적기업들의 과실 송금 등으로 매년 100억 달러 내외의 대규모 본원소득수지 적자를 기록함에 따라 경상수지가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 페루 경상수지 구성 및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 페루 중앙은행

#### 페루 경상수지와 구리 가격 추이

(단위: 억 달러, 달러/톤)



자료 : IMF, Bloomberg

## 외채상환능력

### 꾸준한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으로 안정적인 외환보유액 수준 유지 중

- 페루는 지속적인 경상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친시장 정책에 따른 꾸준한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과 해외 차입 증가 등에 힘입어 안정적인 외환보유액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해외직접투자) 페루의 FDI 유입액은 주로 광업을 중심으로 연간 70억 달러 내외 규모로 전체 자본유입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9년에도 광물 가격 상승세 지속 및 비스카라 대통령의 개혁정책에 따른 페루의 정치적 안정 유지노력으로 꾸준히 유입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외환보유액) 페루는 2018년 말 기준 약 580억 달러의 외환보유액을 기록하고 있으며, 월평균수입액 대비 외환보유액은 약 11개월분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또한 페루는 2016년 말 기준 재정안정화기금(fiscal stabilization fund) 83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어 단기 유동성 위기 발생 및 경기상황에 따른 재정지출 확대 필요성 등에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한 것으로 보임.

### 외채건전성은 중남미 국가 대비 양호한 수준

- 페루는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 경상수지 적자 누적을 보전하기 위한 국채 발행으로 외채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나, 외채건전성은 타 중남미 국가 대비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GDP 대비 공공부채 비중은 중남미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2018년 26.6%)을 유지하고 있음.

\* 타 중남미 국가의 2018년 GDP 대비 외채 비중: 브라질 32.2%, 멕시코 38.5%, 아르헨티나 51.3%, 콜롬비아 46.6%

\*\* 타 중남미 국가의 2018년 GDP 대비 공공부채 비중: 브라질 88.2%, 멕시코 53.5%, 아르헨티나 64.5%, 콜롬비아 4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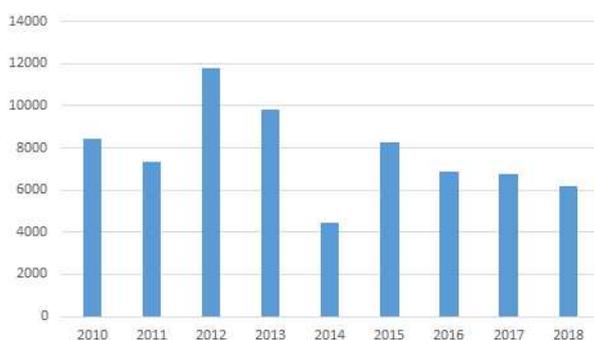
- 페루는 중남미 국가 중 가장 높은 신용등급을 보유한 국가의 하나로 채권 발행을 통해 인프라 프로젝트 시행 등을 위한 재정지출 재원 마련 및 저금리 자금 조달을 통한 공공부채 재조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페루의 경제 성장 및 페루 정부의 재정적자 감축 노력 등 재정준칙\* 준수를 통해 외채건전성 지표는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 페루는 ①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을 30% 내로 유지, ②2021년까지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1%로 감소 등의 재정 준칙을 마련하고 있음.

- 한편,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최근 상승세를 유지하다 2018년 중 총수출 증가 및 외채원리금 상환액 감소 등으로 14.9%로 하락한 것으로 추정됨.

페루 FDI 유입액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 : UNCTAD, 페루 중앙은행

페루 총 대외채무 및 공공 부문 대외채무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 : Bloomberg

## 구조적취약성

### 광물자원 부문에 대한 높은 경제의존도

- 광물자원 부문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 원자재 국제가격 변동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경제구조임.
- 2018년 기준 광물자원 부문은 GDP의 9.4%, 총수출의 58.9%, FDI 유입액의 24%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구리, 금, 아연의 수출액이 전체 광물자원 수출의 70%를 차지함.
- 원자재 국제가격이 하락했던 2014년 이후 페루는 교역조건 악화 및 경제성장률 저하를 기록하였으며, 2017년 이후 구리 등 원자재 국제가격이 회복되면서 경제성장률이 회복세를 보이는 등 원자재 국제가격과 경제성장 간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음.

구리 가격 및 교역조건 지수 추이

(단위 : 달러/톤, 1994년 교역지수 = 100)



자료: Bloomberg

구리 가격 및 GDP 성장률 추이

(단위 : 달러/톤)



자료: Bloomberg, IMF

### 경제성장에 필요한 교통 인프라, 통신 부문의 발전 미비

- 페루는 도로, 철도 등 교통 인프라 및 통신 부문의 발전이 미비하여 경제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IDB의 분석에 따르면 페루는 최근 10년 간 생산 및 교통·통신 분야 등의 인프라 투자 저조로 인해 국민소득이 20%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 세계경제포럼의 글로벌경쟁력지수(The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2018) 교통 인프라 부문 세부 항목별 순위는 140개국 중 도로 108위, 철도 93위 등이며, 인터넷 이용자 수(100명당)는 45.5명으로 140개국 중 89위에 불과함.
- 페루 국가 인프라 계획(2016~25년)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10년 간 인프라 갭\*은 1,600억 달러로 추정되며, 페루 정부는 동 기간 중 전체 인프라 갭의 41%인 총 660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임.

\* infrastructure gap, 필요 인프라 투자액과 실제 인프라 투자액의 차이

- 부문별 인프라 갭은 도로 319억 달러, 철도 170억 달러 등 교통 부문이 575억 달러이며, 이동전화 29억 달러, 광대역 통신망 212억 달러 등 통신 부문이 270억 달러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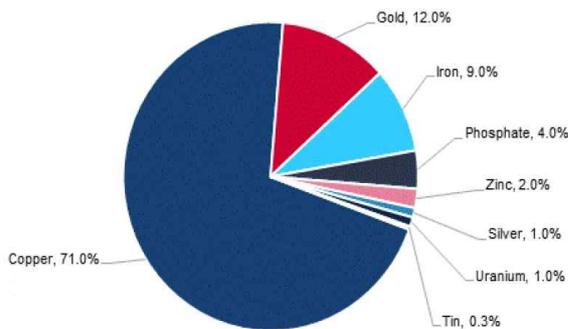
## 성장잠재력

### 다양한 광물자원 보유 및 광산업 개발 잠재력 풍부

- 페루는 구리, 금, 아연, 납, 은 등 다양하고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광물자원 부국이며, 광물 개발지역이 국토의 10%대에 불과하여 향후 잠재력도 높은 것으로 평가됨.
- 2018년 기준 구리 매장량은 8,300만 톤으로 세계 3위, 생산량은 240만 톤으로 칠레에 이어 세계 2위이며, 금 매장량 및 생산량은 각각 2,600톤(세계 5위), 145톤(세계 6위)임.
- 아올러 아연(매장량 세계 3위, 생산량 세계 2위), 납(매장량 세계 3위, 생산량 세계 2위), 은(매장량 세계 1위, 생산량 세계 2위) 등도 풍부함.
- 페루에 진출한 다국적기업들은 광물자원 중 특히 구리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으며, 페루 정부 역시 구리 광산 설비투자 확대를 통해 2021년까지 구리 생산량 세계 1위를 목표로 하고 있음.
- 특히 페루산 구리의 최대 수입국\*인 중국의 구리 수요 증대로 중국 기업들의 구리 광산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10년간 5개의 광산 개발 프로젝트에 102억 달러를 투자할 것으로 예상됨.

\* 2018년 기준 페루산 구리의 주요 수입국 : 중국(64.8%), 일본(8.3%), 한국(6.4%)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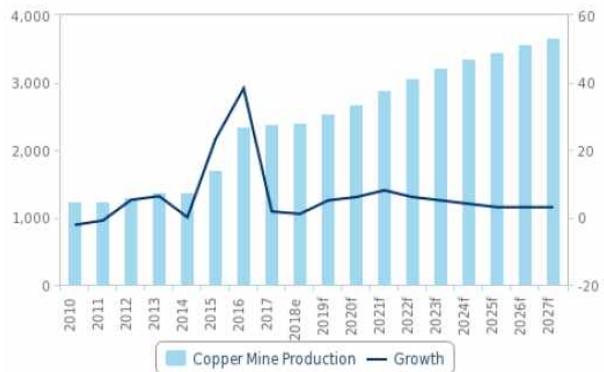
### 광물자원별 프로젝트 투자 예상액 비중



자료: Fitch Solutions

### 구리 생산량 및 성장률 추이

(단위 : 천 톤, %)



자료: Fitch Solutions

### 페루의 광물자원 보유 현황(2018. 9월)

자원	매장량	세계비중	세계 순위	생산량	세계비중	세계 순위
구리	8,100만 톤	11%	3위	239만 톤	12%	2위
아연	28만 톤	11.4%	3위	130톤	14%	3위
은	9.3만 톤	21%	1위	4,500톤	15.2%	3위
납	6,000만 톤	7.5%	4위	300만 톤	6.4%	4위
금	2,300톤	5.0%	6위	155톤	4%	6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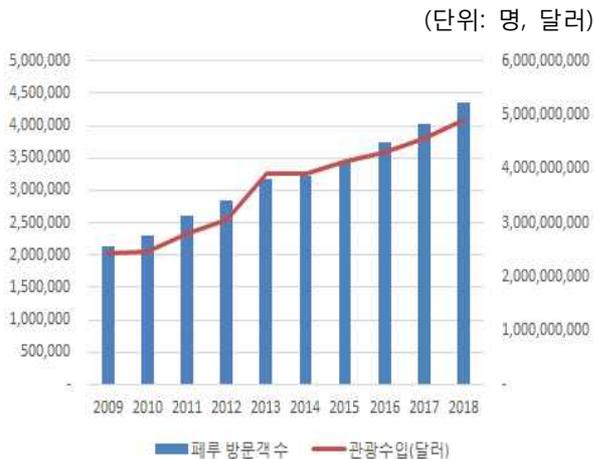
자료: KOTRA

## 성장잠재력

### 관광산업 육성 지속 추진

- 페루는 마추픽추, 쿠스코 등 잉카 문명 유적지 보유, 외국인들의 비즈니스 방문 증가 등으로 관광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페루 정부도 산업구조 다변화의 일환으로 관광산업 육성을 정책 우선순위로 두고 있음.
- 2017년 세계경제포럼의 '관광산업 경쟁력 보고서'에서도 페루는 조사대상 136개국 중 51위를 기록하여 2015년 대비 7단계 상승하였으며, 세부 항목에서도 천연자원(4위), 문화자원(24위) 등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함.
- 페루의 총 부가가치 대비 관광산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 비중\*은 관광객 수 증가에 힘입어 최근 5년간 꾸준히 5% 내외를 유지하고 있으며, 총수출 대비 관광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기준 약 8%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관광산업은 페루 경제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음.
  - \* 총부가가치 중 관광산업 비중(%) : 4.6%('14) → 4.8%('15) → 4.9%('16) → 4.6%('17) → 4.5%('18)
- 한편, 2019년 수도 리마에서 개최되는 판아메리칸게임 및 정부의 교통 인프라 투자(리마 국제공항 확장, 8개 지역공항 개선 등), 잉카 유적 외 관광지 다변화 노력(아마존, 해안지역 등) 등에 힘입어 관광객 수는 전년 대비 증가할 예정이며, 페루 관광청은 2021년까지 관광객 수 700만 명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페루 관광객 수 및 관광수입 추이



자료: World Bank, Fitch Solutions

페루 총수출 대비 관광수입 비중 추이



자료: World Bank, Fitch Solutions

## 정책성과

### 우호적 기업환경 조성을 위한 친시장 정책 지속 추진

- 페루는 안정적 경제성장, 시장친화적인 정책 유지 등으로 외국인투자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으며, 세계 은행에 따르면 페루의 2019년 기업경영여건 종합순위(Ease of doing business ranking)는 190개국 중 68위를 기록하여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멕시코(54위), 칠레(56위)에 이어 제3위를 기록함. 특히, 자금 조달(32위), 재산권 등록(45위) 부문에서는 세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음.
- 페루 정부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외국인투자자들에게 페루 국내기업들과 동등한 권리·책임을 부여하고 안전한 투자환경을 법적으로 보장하며, 특히 경제성장의 주요 동력인 광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시장친화적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페루는 광업투자 진흥법을 제정하여 광업 부문에 대한 투자여건을 보장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원금 및 이익금 송금 100% 허용 등 외환 안정성, 세제 안정성\*, 경영안정계약\*\*에 의한 투자안정성을 보장하고 있음.
  - \* 세제가 개정된 경우에도 투자자는 투자 승인시점에서 유효한 세제를 적용받게 되며, 투자자가 개정 세제가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규 세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
  - \*\* 투자계획 승인시 투자업체-정부 간 경영안정계약을 체결해 정부가 지원사항을 개별적으로 문서로 보증하며, 사후에 정부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른 변경이 불가능함.
- 한편 비스카라 대통령은 집권 이후 페루 광업 부문에 대한 FDI 촉진 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며, 광산업 허가 절차 간소화 및 규제 완화 등을 실시하고 있음.

### 적극적인 대외개방경제정책 추진

- 페루는 전 세계 50개국 이상과 FTA를 체결\*하는 등 자유무역을 통한 기업들의 생산성 제고 및 외국인 투자 유입 촉진 등 경제성장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있으며, 전체 수출액의 95% 이상이 FTA 체결 상대국들에 대한 수출임.
  - \* 온두라스, Pacific Alliance, EU, 일본, 코스타리카, 파나마, 멕시코, 한국, EFTA(스위스,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중국, 캐나다, 싱가포르, 칠레, 미국, MERCOSUR 중 일부(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태국 등
- 페루는 미국(2009년 발효), 중국(2010년), 한국(2011년), EU(2013년) 등 주요 교역상대국과 FTA를 체결하여 양자간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한편, 2018년 2월 호주와도 FTA를 체결한 바 있으며, 인도·터키·엘살바도르 등과도 FTA 협상을 진행하는 등 FTA 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한편, 페루는 꾸준히 관세율 인하를 시행하여 2000년 기준 가중평균관세율(Weighted Average Tariff Rates)\*이 12.8%에서 2017년 기준 0.8%를 기록하는 등 관세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여타 중남미 국가에 비해 관세율이 낮은 편\*\*임.
  - \* 양국 간 실제 교역량을 고려한 관세율
  - \*\* 중남미 국가들의 가중평균관세율(2017년 기준) : 브라질(8.6%), 아르헨티나(7.9%), 볼리비아(6.1%), 우루과이(6.3%), 멕시코(1.2%) 등

## 정치동향

### 여소야대 정국에서 정치적 불안정 지속

- 2016년 6월 실시된 대선에서 중도우파 '변화를 위한 페루인당'(Peruanos Por Kambio, PPK)의 쿠친스키(Pedro Pablo Kuczynski) 후보가 50.1%를 획득하여 49.9%를 득표한 강성우파인 민중권력당(Fuerza Popular, FP)의 케이코 후지모리(Keiko Fujimori)\*\* 후보를 0.2%p차로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나, 브라질 건설기업 Odebrecht社 부패 스캔들에 연루된 쿠친스키 대통령이 2018년 3월 탄핵 2차 표결을 앞두고 사임하여 비스카라(Martin Vizcarra) 제1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하였음.

\* 비스카라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 대통령의 잔여 임기인 2021년 7월까지임.

\*\* 페루 전직 대통령 알베르토 후지모리(1990~2000년)의 딸

- 비스카라 대통령은 취임 당시 부패 척결을 통한 투명성 제고를 강조하였으며, 권력분립, 균등성장 등의 국정운영 방향을 설정하고, 보건, 고용창출, 치안 등 핵심 국정과제를 설정하였음. 다만, 의회에서 총 130석\* 중 여당(PPK) 의석 수는 11석에 불과한 여소야대 상황으로, 야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

\* 후지모리가 이끄는 민중권력당이 53석으로 원내 제1당을 차지하고 있음.

- 한편, 2018년 11월 야당 당수인 후지모리가 Odebrecht社로부터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되었으며, 비스카라 대통령이 제출한 헌법 개정안에 국회의원의 연임 금지 조항이 포함되어 여야관계가 악화되었음. 이를 해소하기 위해 비스카라 대통령은 2019년 3월 살바도르 델 솔라(Salvador del Solar) 총리로 내각을 교체\*하고 반부패·개혁정책을 지속할 계획임을 밝힘.

\* 기존 세사르 비야누에바(Cesar Villanueva) 총리는 2018년 3월 비스카라 대통령 취임시 총리로 임명된 후 대통령이 추진 해온 국가개혁 정책을 보좌하였으나, 행정부 소통 부족의 주요 요인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왔음.

- 제1야당인 민중권력당은 후지모리의 구속 이후 소속 의원들이 탈당(73석→53석)하는 등 내분이 발생하고 있어 세력이 약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원내 제1당을 유지하고 있으며, 비스카라 대통령의 주요 국정과제에 반대의견을 피력할 것으로 예상됨. 다만, 민중권력당의 친시장 성향을 고려할 때 비스카라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인 광업 부문에 대한 외국인투자 유입 촉진정책 기조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임.

## 사회동향

### 사회 전반에 걸쳐 부정부패 만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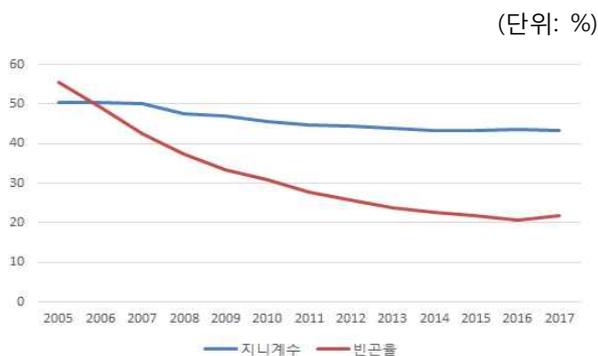
- 광업 부문의 높은 성장잠재력, 정부의 친시장 정책 등으로 외국인투자가 유입되고 있으나, 만연한 부정 부패는 페루의 주요 투자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으며 페루 정부에 따르면 부정부패에 따른 비용이 매년 36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
- 2018년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에서 페루는 총 180개국 중 105위에 불과하며, 아르헨티나(85위), 콜롬비아(99위)보다 낮은 순위임.
- 1990년부터 2000년까지 장기집권한 알베르토 후지모리(Alberto Fujimori) 전 대통령은 반대파 탄압 및 지지기반 확보를 위해 국회의원·법관을 매수하고 선거 때 금품을 살포하는 등 부정선거를 일삼아 2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으나, 쿠친스키 전 대통령이 Odebrecht 뇌물사건과 관련한 탄핵 위기시 알베르토 후지모리의 딸인 케이코 후지모리가 이끄는 민중권력당(FP)의 지지를 얻기 위해 석방\*시켜준 바 있으며 2019년 1월 다시 재수감되었음.
  - \* 페루 의회는 2017년 12월 쿠친스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탄핵 표결을 실시하였으나, 쿠친스키 전 대통령의 후지모리 전 대통령 사면으로 탄핵을 추진하던 민중권력당(FP) 의원 10명이 기권함에 따라 찬성표(78표)가 의결정족수(87석)에 미달하여 탄핵안이 부결된 바 있음.
- 한편, 2016년 말 브라질 건설회사 Odebrecht\*가 2005~14년 중 페루 공직자들에게 총 2,900만 달러의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드러나 톨레도(2001~06년), 가르시아(2006~11년), 우말라(2011~16년), 쿠친스키(2016~18년) 등 전직 대통령 4인이 연루된 상태이며, 2019. 4월 가르시아 전 대통령이 동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기 직전 목숨을 끊는 등 파장이 지속되고 있음.
  - \* 브라질, 페루, 멕시코,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등 중남미 전·현직 정치지도자들이 Odebrecht로부터 공공사업 계약 수주와 관련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브라질 룰라 전 대통령도 Odebrecht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임.
- 특히 쿠친스키 전 대통령은 2004~07년 자신의 컨설팅회사 Westfield Capital을 통해 Odebrecht로부터 78만 2,000달러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의회의 탄핵 절차가 진행 중이었으며, 결국 2018년 3월 탄핵 2차 표결을 앞두고 자진 사퇴하였음.
- 쿠친스키에 이어 집권한 비스카라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부패 척결 및 정부의 투명성 제고를 강조하고 이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였으며, 2018. 8월 사법·정치개혁을 위한 헌법 개정안(국회의원 연임 금지, 정치자금법 개혁, 사법위원회 개혁, 국회 양원제 복원)을 발의하여 12월 국민투표에서 양원제 복원을 제외한 3개 안건이 통과되어 2019년 중 관련 법률이 제정될 것으로 예상됨.
- 이를 통해 판·검사를 선출하고 감독하는 사법위원회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회의원들의 선거자금 규제 강화가 가능해 입법·사법부의 부정부패에 대한 견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사회동향

### 지역간 빈부격차 상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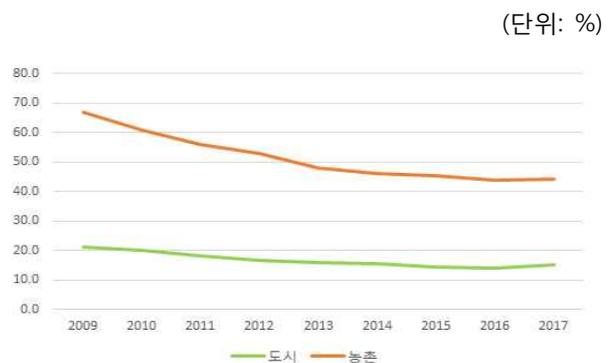
- 페루의 빈곤율은 국제 원자재 시장 활황에 따른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힘입어 2005년 55.6%에서 2010년 31%, 2017년 21.7%로 크게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수도인 리마 중심의 해안 지역과 아메리카 원주민이 대다수인 동부 농촌 지역 간 빈부격차가 큼.
  - 2017년 기준 페루의 도시 빈곤율은 15.1%이나, 농촌 지역 빈곤율은 44.4%로 도시에 비해 3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 또한 빈부격차를 측정하는 지표인 지니계수도 2005년 50.4에서 2017년 43.3으로 하락하였으나, 소득 분배의 불평등 상태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음.
  - 특히, 동부 농촌 지역 중 광산이 소재한 안데스 고산지대 주변의 빈곤율\*이 가장 높으며, 이는 광산개발의 이익이 대부분 다국적기업들에 귀속되는 데 기인함. 이에 지역 주민들은 환경 파괴, 개발이익 분배 및 거주민 이전 문제 등을 이유로 개발 반대 시위를 지속하고 있어 사회불안의 원인이 되고 있음.
- \* 지역별 빈곤율(2017년 기준) : 고산지대(농촌) 48.7%, 밀림지역(농촌) 41.4%, 해안지대(농촌) 24.6%, 밀림지역(도시) 20.5%, 고산지대(도시) 16.3%, 해안지역(도시) 15.0%
- 한편 페루 정부는 독립 200주년 개발계획(2011~21년)에서 페루 독립 200주년인 2021년까지 지역간 균형발전, 지속가능한 질적 성장 등을 달성하기 위해 빈곤율 10%, 지니계수 35 달성 등의 목표치를 제시하고, 농촌 지역 개선사업 및 도시-농촌간 연결을 위한 도로 인프라 투자 등을 수행하고 있음.

페루 빈곤율 및 지니계수 추이



자료: World Bank

페루 도농 빈곤율 추이



자료: 페루 국가통계청

## 사회동향

### 코카인 원료 재배 및 마약범죄 등으로 인한 치안 불안

- 페루는 콜롬비아, 볼리비아와 함께 중남미 3대 코카인 생산지\*로 아푸리막(Apurimac) 강, 에네(Ene) 강, 만타로(Mantaro) 강 계곡 지역(Valley of Apurimac, Ene, Mantaro Rivers: VRAEM)을 중심으로 코카인의 원료인 코카(coca)나무의 불법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반정부 사회주의 조직 '빛나는 길'(Shining Path)\*\*과 연계되어 치안불안을 야기하고 있음.

\* 2017년 기준 코카나무 생산면적 : 콜롬비아(209천 ha), 페루(49천 ha), 볼리비아(31천 ha)

\*\* 80년대 초 공산 인민혁명을 지원하기 위해 구성된 조직으로 원주민 노동력 착취 등에 반발해 1980~90년대 반정부 투쟁을 지속하였으며, 최근에는 VRAEM 지역에서 마약 밀매를 하고 있음.

- 2018년 세계경제포럼의 글로벌경쟁력지수에서 페루의 범죄 관련 세부지표 순위는 하위권으로 140개국 중 조직범죄 129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페루 정부 조사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대도시 거주민 중 32%가 범죄피해를 당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함.
- 이에 페루 정부는 치안개선을 국정 주요 과제의 하나로 선정하였으며, 경찰조직 현대화 및 경찰관 수 확대, 범죄 예방 및 컨트롤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범죄피해율을 2021년까지 25%로 낮출 계획을 가지고 있음.
- 또한, 코카나무 재배를 줄이기 위해 특별강력단속반 투입 및 코카나무 → 커피나무 재배 유도 등의 정책을 펴고 있으나, 코카나무 잎의 단가가 커피 생두(coffee bean)에 비해 높아 전환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보임.

## 국제관계

### 적극적인 역내 지역통합기구 참여를 통한 경제협력 증진 노력 지속

- 페루는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 안데스공동체(Comunidad Andina, CAN) 등의 회원국으로 참여하여 역내 지역통합 강화와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태평양동맹은 2012년에 결성된 페루, 멕시코, 콜롬비아, 칠레 등 4개국이 참여하는 경제협력체로, 역내 재화, 서비스,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 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중남미 총 GDP의 38%, 무역의 50%를 점유하고 있음. 현재 호주·캐나다·뉴질랜드·싱가포르 4개국과 준회원국 가입 교섭을 진행 중이며, 한국도 2018년 7월 준회원국 가입을 표명\*함.
  - \* 준회원국 가입은 태평양동맹과 양자 FTA 체결을 의미하며, 한국은 페루, 콜롬비아, 칠레 3개국과는 이미 FTA가 체결되어 있어 준회원국 가입시 멕시코와의 신규 FTA 체결 및 페루, 콜롬비아, 칠레와의 FTA 내용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안데스공동체는 1969년에 설립된 경제협력체로 페루,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가 회원국이며, 회원국 간에 일반관세를 철폐하고 대외 공동관세를 적용하고 있음.
- 한편, 페루가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는 TPP(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에서 미국이 탈퇴를 선언함에 따라 페루는 중국 주도의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에 참여 의사를 표명한 바 있음.
  - \* TPP :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통합을 목적으로 출범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궁극적으로는 공동시장을 목표로 하며, 당초 미국을 포함한 12개국이 2015년 10월 협상을 최종 타결하였으나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한 도널드 트럼프 당선 이후 2017년 1월 미국이 탈퇴를 선언함(참여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멕시코, 페루, 칠레, 브루나이).
  - \*\* RCEP : 아세안(ASEAN) 10개국(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브루나이, 싱가포르) 및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페루 등이 참여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중국이 주도하고 있으나 참여국 간 이해관계 상충으로 합의가 지연되고 있음.
- 한편, 미국의 탈퇴로 동력을 잃었던 TPP는 나머지 11개국 간 협상의 결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동반자협정(CPTPP)'으로 재탄생하였으며 2018년 12월 30일 공식 발효되었음. 이에 따라 페루 정부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자국 입지 강화, 뉴질랜드, 베트남,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4개국과의 신규 FTA 협정 체결 효과 등을 기대하고 있음.

## 외채상환태도

### 양호한 외채상환태도 유지

- OECD 회원국 ECA에 대한 연체액 규모가 매우 낮은 점 등을 감안 시 페루는 최근 양호한 외채상환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2018년 말 기준 OECD 회원국 ECA의 페루에 대한 원리금 잔액 53.5억 달러(단기 16.5억 달러, 중장기 37.0억 달러) 중 연체잔액은 0.7백만 달러에 불과함.
- 과거 과중한 외채로 8차례 파리클럽과의 채무재조정을 경험한 바 있으나, 2005년 및 2007년에 파리클럽 채무 중 45억 달러를 조기상환하여 채권자 신뢰 회복을 도모하였고, 1996년을 마지막으로 20년 이상 채무 재조정이 없는 상태임.

## 국제시장평가

###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등급	종전 평가등급
OECD	3등급 (2018.10)	3등급 (2017.10)
Moody's	A3 (2017.08)	A3 (2014.07)
Fitch	BBB+ (2013.10)	BBB (2012.11)

### OECD 및 국제신용평가사들로부터 투자적격등급 유지

- OECD는 2008년 페루의 높은 경제성장, 무역상대국 다변화, FDI 유입 증대, 양호한 외채상환태도 등을 고려하여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향 조정하고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음.
- 또한, 국제신용평가 3개사로부터 투자적격등급을 부여받고 있어 양호한 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등급 전망은 국제신용평가 3개사 모두 'Stable'임.
- 2014년 Moody's는 경제성장 지속, 낮은 공공채무 수준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페루의 신용등급을 Baa2에서 A3로 두 단계 상향 조정한 바 있으며, 2013년 Fitch는 페루 정부의 지속적인 외채관리 노력, 투자 증가 등을 감안하여 BBB에서 BBB+로 한 단계 상향 조정하였음.

### 대외차입능력 양호

- 페루는 경상·재정수지 적자 보전, 저금리 자금 조달을 통한 공공부채 재조정을 실시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하고 있으며 필요시 자유로운 차입시장 접근이 가능한 바, 대외차입능력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페루 정부는 2018년 11월 31억 달러 규모의 솔(sol)화 표시채권 발행 당시 외국인투자 수요가 높아 당초 예상 발행금리인 6.125%보다 낮은 5.95%로 채권을 발행하였고, 투자자의 70% 가량이 해외 기관투자자라고 밝힘.

- 페루는 중남미 국가 평균 대비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지속 중이며, 2018년에는 원자재 국제가격 상승, 재해 복구 사업 및 인프라 투자 증가 등에 힘입어 4%의 경제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한편, 중앙은행의 확장적 통화정책 지속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년간 비교적 안정적인 물가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식료품 가격 안정세로 1.3%의 물가상승률을 시현하며 정부의 인플레이션 목표(1~3%)를 달성한 것으로 보임.
- 재정지출 확대 및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세수 감소 등으로 2014년 이후 재정수지는 적자를 지속하고 있으나, 경상지출 합리화 노력 및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 증가로 2018년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이 전년 대비 감소한 -1.9%를 기록함.
- 원자재 의존형 수출구조에 따라 경상수지가 원자재 국제가격 변동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상품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다국적기업들의 과실 송금 등으로 매년 100억 달러 내외의 본원소득수지 적자를 기록함에 따라 경상수지는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다만, 광업 부문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지속으로 외환보유액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페루는 다양한 광물자원 및 잉카 문명 유적지 보유에도 불구하고 인프라 미비, 부정부패 만연, 지역간 빈부격차 등의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음. 다만, 이를 극복하기 위한 페루 정부의 인프라 투자, 친시장정책 유지, 자유무역을 위한 적극적인 대외개방 경제정책 추진 등으로 FDI 유입이 지속되고 있어, 양호한 외환보유고 및 해외차입능력 등을 감안시 페루에 대한 국제시장의 평가는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됨.